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신년 메시지

새해에는 더욱 더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희 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의 문이 넓게 열릴 것인지 아니면 열렸던 문도 닫힐 것인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국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미래를 바르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확실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모든 불안을 제거 해줍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더욱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를 더욱 더 알아야 합니다.

주를 안다고 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앞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 더 채워져야 합니다.

둘째, 주를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돈보다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체면을,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미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모름지기 주께 대해 덜한 사랑이 더하는 사랑으로 분발하는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셋째, 주께 더욱 더 드려야 합니다.

주께 대한 봉헌 행위에 있어서 최저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에 십일조 이하는 안 되지만 십일조 이상은 얼마든지 좋으며 시간을 드리는 일에 이레 중 하루를 아니 바치면 안 되지만 그 이상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바치려는 근성을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발동시키려는 것은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과거가 부실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잘한 사람일지라도 더욱 더 잘하여 새해는 향상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신년감사예배 · 순결서약식

주일 | 1111부 예배-성찬예식, 순결서약식-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신년 첫 주일예배를 신년감사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위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또 찬양예배 시간에는 2006년도 순결서약식이 있다. 순결서약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교회 등록교인으로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들로 오늘의 서약을

통해 결혼 전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관리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오늘 서약을 하는 이들에게는 서약을 항상 기억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도록 후원자의 도움과 부모의 지원으로 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1995년 첫 주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12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2006년도 비전2020 후원자 모집

1구좌: 3,000원, 진중 세례식 등에 사용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진돈 장로)는 2006년도에 군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비전2020운동은 한국교회가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운동으로 우리교회는 진중세례식과 사랑의 온차운동, 사관학교 세례식 및 졸업예배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국군 장병들이 힘든 군생활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민족의 앞날을 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하다.

한 병사의 세례를 돕기위한 후원은 1구좌 당 3000원으로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삼입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 해에 헌신하신 이들은 물론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민족 복음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보내는 선교사(선교사 중보기도팀) 활동 시작

새해 첫주일부터 매주 1회 모여

'중보기도의 끈을 놓치면 선교사는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는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의 비전을 받고, 올해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제 가는 선교사를 후방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중보기도팀이 조직되어 가동된다. 지원자와 선교대학 1,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기본팀을 구성하였으며, 새해 첫 주부터 주 1회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파송선교사를 위해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 선교사에게는 기쁨, 중보기도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영광의 대열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교사	팀장	기도후원자
홍의만 윤혜경	남태순권사	김광신 홍승자 권은주김규순 김수련 김주현최소희 최진경 하인선
신종명	박현영집사	이복규 한명순 박찬주 노창훈 박우옥 이성애 신혜영 신혜진
문형숙	문형순집사	하영수 서경애 신은미 안정숙 양호정 최길옥 최낙준 한선현 강승웅 박길수
스브로토바로이	이현주집사	전기섭 오길탁 우지원 오유식 왕경태 오승민 유한영 최규초 문옥일 박진희 원정연
조남혜	양정실집사	박두호 정미연 전용순 황선희 김영옥 이자혁 오정수 이영희(오) 주미영주화인
이재울 박병진	김신영집사	신용식 김영주 안미경 정동학 이갑진 한길동 정창빈 정희정 이상은 김원웅
이은준 강혜정	이영숙권사	최광성 이영기 김태기 정동호 배준길 장인원 유승순 소선자 유을상
강아곱 주한나	이난화집사	윤찬호 오형철 신동기 장양일 신정순 황재연 김경옥 김연화 김수정
조범연 김희정	이인숙권사	정병무 이은희 곽 숙 노문환 최형열 이찬호 김찬진 은기장 장정화
이경현	전하미집사	조정식 김영식 김은태 김민희 박길희 진 돈 송혜숙 이승준 원용범 이양철
Mang / Tuang Nawn / Cung Kya	전행자권사	박두영 김인수 유기찬 유관모 윤용미 이광열 이용필 이화용 전광환 조상환

중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1월 8일 (주일)

오전 10시 중등부실(501호)

우리 교회 중등부는 1월 8일 주일 1부 예배 후 학부모 초청 행사를 갖는다. 올 한해 중등부의 운영 계획과 담임교사 소개 그리고 반별 모임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반 운영 방침, 신앙 생활지도 문제, 1년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학부모 초청은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긴밀히 협조하는 계기를 만드는 행사가 될 것이다.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모든 중등부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여 믿음을 쌓고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게 될 이번 학부모 초청 주일 행사에 학부모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핸드벨 단원모집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핸드벨 단원을 모집한다. 핸드벨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신청은 주일 오후 3시까지 핸드벨실(504호)로 하면된다.

내일부터 주중에는 매식

1식에 2000원씩,

미리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모든 성도가 새해부터 주중 식사를 매식하게 된다. 1식에 2000원으로 식권은 사무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식권은 미리 구입하여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부탁하며 수익금은 구제 및 선교비로 사용하게 된다.

2006년 농어촌100교회 후원 작성 명단

번호	이름	구좌	번호	이름	구좌
100	김해인 김혜진 김영서	1	111	유봉려	1
101	대학부	1	112	이동만	1
102	도르가 여전도회	1	113	초등부	1
103	루디아 여전도회	2	114	홍성혜	1
104	모세남선교회	2	115	김세제,이운진	1
105	박영선	1	116	김재중,김유경	1
106	베드로선교회	1	117	박정란	1
107	빌립선교회	1	118	은기장,김경숙	1
108	서상근 서범준	1	119	이관규,이순영	1
109	안드레	1	120	이영조,이민광	1
110	엘리아 선교회	1			

(다오주 계속)

금주의 성구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2:11)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and of incense and of myrrh. (Matthew 2:11 [NIV])

☞ 위원장에게 듣는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김광신 장로 (찬양위원장)



찬양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찬양은 기능성이고 섬김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삼의 지휘로 레위인들의 찬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신약시대인 지금은 세계에 흩어진 교회에서 끝없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에도 찬양은 해답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깊은 산골에서도 찬송 하나면 봄이 오고 겨울은 도망갑니다. 삭막하고 시끄럽기로 소문난 도시 안에서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으면 내일이 열립니다. 찬양은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로 표현되고 할머니의 무곡조 노래로 말합니다.

그러나 더 완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찬양은 선택 받은 찬양대원의 합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일 년 내내 서울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교회 찬양대원 모두는 열심을 낼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평생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의 찬양만 부를 것입니다.

여기 속임수도 안 되고 핑계도 안 되고 게으름이나 적당히는 더욱 안 됩니다. 들어 보십시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된 찬양을 위해 서울교회 찬양대는 발을 밟고 열심히 연습 또 연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교회 각 찬양대는 노래로만 말할 것입니다.

하영수 장로(전도위원장)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보이지 않았습다. 들에 맞아 초죽음이 되어도 말할 기운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전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총독 베스도가 소리쳤을 때 사도 바울은 모두가 나처럼 이렇게 미치기를 바란다교까지 말하며 영광의 주님을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영원한 낙원이 기다릴 줄 알았지만 일락에 빠진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해이해지고 타락하여 영원히 성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티끌만큼 헌신한 것이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여기는데 자랑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선교회와 전도회장에게 오직 복음 전도에만 전념토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수절에 빼곡히 적힌 수많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도노래로 아뢰는 충성스런 전도자가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자임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빛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새해에는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보화인 복음을 만민에게 나눠주는 기쁨을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준경 장로 (관리위원장)



서울교회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세워 졌습니다. 홀로 구운 벽돌로 세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인들 내가 세운 내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책도 없이 찬송가도 들지 않고 교회에 갈 때에 낡은 성경책을 보며 마음에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웬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하주차장에 급히 주차하고 뛰어 들어 가면서 힐끗 보이는 주차관리 집사님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웬지요. 많은 성도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나 계단에 떨어진 과자 껍질이나 종이를 집으며 마음에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웬지요. 8층 만나 홀에 갈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딱기만 하고 빈 접시를 반납할 때에는 부끄럽기 까지 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차든 식당이든 이제는 서울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므로 우리 모두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교회당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서울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는 서울교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앞드려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여러분

2006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목사와 장로일동 -

2006년 행사계획

2006년 연간 주요 행사계획

· 송구영신예배	1.1(주) 0시	· 찬양대원 세미나	5.19(금) 오후 7시30분	·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11.3(금) 오후 7시30분 -교사전원
· 신년감사예배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주일 123부 예배)	· 권사,안수집사선거	5.28(주) 3부예배 후	· 성경암송대회	범위: 디모데전서 전장 -예산: 10.22(주) -본선: 10.27(금) 7시 602호
· 순결서약식	1.1(주) 찬양예배시	· 2006홍해작전	6.6(화)-6.25(주) 오전 5시	·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15주년 감사주일	11.12(주) 찬양예배시 -중고대청부 특순 11.19(주) 감사찬양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11.26(주) 감사예배 및 성찬식
·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1.3(화) 07:00	· 맥추감사절	7.2(주) 감사예배 및 성찬식 감사찬양예배-7.2(주) 찬양예배시	· 2007년 직분자임명	12.3(주)-서리집사, 교구일꾼 12.10(주)-찬양대원 12.13(수)-호산나, 은빛, 시온 12.17(주)-교사임명 12.15(금) 이후
· 청지기수련회	1.9(월)-14(토) 오전 5시	· KIMCHI신학세미나	6.5(월)-14(수) 대상: 동아시아 7-8월 중	· 찬양대 총회	
· 총회 군종목사 사관후보생연합예배	1.10(화)	·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 교사총회	12.19(화)
·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1-2월 중	· 농촌전도단 파송	각 지회별 연중실시	· 상탄축하예배	12.17(주)성탄축하찬양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12.24(주)-성탄전야행사 12.25(월)-오전 5시 성탄 새벽예배 성탄축하예배-1부: 9:00 2부:11:20
· 장학금 수여식	2.12(주) -전반기 장학생	· 6기단기선교팀파송	8.1(화) 10일(목) 대상국: 카자흐스탄 8.13(주) 후반기 장학생	· 목회정책협의회	12.8(금)-9(토)
· 신임군종목사 수련회	3.21(화)	· 장학금 수여식		· 교회학교졸업, 권사 은퇴, 장로인식년, 전도상시상, 주간성경공부 수료	12.31(주)
· 부활절	4.16(주) -성찬식 찬양예배-감사찬양예배	· 당회원 수련회	8.15(화), 당회원 부부		
· 육사세례식	4월중(찬양:호산나)	· 30학기 목회자세미나	9.4(월)-11.6(월) 10주, 오후 2시		
· 20학기 목회자세미나	3.6(월)-5.8(월) 오후 2시	· 20학기 성경대학	9.4(월)-11.6(월) 10주간		
· 19학기 성경대학	3.6(월)-5.8(월) 10주간	· 2006 바자	9.21(목)-9.22(금) 2일간		
·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4.25(화) 오후 7시30분 -교사전원	· 성경통독사경회	10.5(목)-7(토) 범위: 구약		
· 교구 찬양대회	5.12(금)	· 사명자대회	10.8(주) 11.26(주) 50일간		

내 안에 찬송이

창애신 (11교구)

창문으로 흘러든 찬송
목숨에 녹아
나의 길 되었네

떡갈나무 숲에 내려왔은
달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기억의 벽에 새겨진
찬송이 흘러내리면

어딜가도 앞에 가고
어디에 있어도 함께 있으니
맑은 하늘 내다보네
고단함도 사라지네

때 묻은 기슴 씻기워지고
마음 밭 환해지니
하늘 높이 치솟은 찬송
나를 든든히 세워주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일(화) 서울강남노회 신년하례회에서 설교한다. 4일(수)~6일(금) 한국기독교 학교장 연합회 수련회에서 강의한다.
- 준공: 대도빌딩 송병도 김순남 성도 송상준 김수연 집사 (6교구) 강서구 화곡6동 993-1
- 이사: 아기곤집사, 김순자권사(9교구) 성동구 홍익동 50 대주파크빌 T. 2296-2286
- 주간 식당 봉사: 한나전도회 (12월 25일) 당회원 (1월 1일)
- 금주의 식사: 원용규집사, 박이선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해에 바라는 것들 주 안에서 성취 되기를
2. 오늘 공동의회에서 예·결산 은혜롭게 받아지도록
3. 임명받는 일꾼들이 성령충만하여 사명자로 섬기도록
4. 새해에는 정직하고 법과 질서가 세워진 국가 사회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